

노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참사람 운동을 통한 선(禪)의 보편화에 전념하고 계신 서옹스님.



해운정사에서 열리는 무차법회에서 차별없는 부처님

가져다 써서는 안됩니다. 현대 사회가 선을 수용
: 것은 서양문명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결점을 보
하고자 하는 문화적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양의 정신문화로서 선을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측
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형식만 수용해선 인간을 근

원적으로 변화시킬수 없습니다. 그것이 서양문명이 선을 수용하고 있는 한계이며, 때문에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사선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70년대부터 조사선으로 세계 평화와 자유를 이루기 위한 참사람 운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참사람이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인류는 과학문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 차 타

이기적 욕망 버리고 끊임없이 참선하라

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뿐입니다. 자연파괴, 환경오염, 국가간의 전쟁 등 모든 것이 투쟁으로만 뻗치고 있습니다. 참사람은 상하, 귀천, 성인과 범부 등을 초월해 화해와 자유에 투철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아를 초월한 본성자리이자, 인간의 진실성을 근원적으로 드러낸 본래의 자기 자신이 참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오염과 욕망의 장애를 벗어버리고 분별과 아집을 타파해서 진실한 인간상인 참나를 되찾으면 나와 남의 대립,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참사람은 참으로 자유자재하고 절대평등하며 대자대비합니다. 우리 스스로 참사람임을 믿고 참사람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사선과 참사람 운동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조사선은 참사람이 되기 위한 수행 방법이지요. 조사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참사람 운동의 핵심입니다. 조사선은 자아를 초월하여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드러내게 하며, 이러한 경지를 참사람이라고 합니다. 조사선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주는 모두 조화롭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은혜를 주고 받으며 공존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우치는 것이 조사선이기에 조사선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아름답고 즐거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조사선의 바탕 위에서는 누구나 자비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무너진 인간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조사선의 전통을 보편화시키려는 의도의 하나로 98년과 2000년 백양사에서 무차선회를 펼치셨고, 올해는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립니다. 법회는 원래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데 굳이 '무차' 형식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차란 형식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평등 정신에 의해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펼치셨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중생의 나쁜 습관에 의해서 그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도 있고, 궁극적으로 흐트러진 수행가풍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기 위해 무차 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무차 법회를 열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하와이대 칼루파하나 교수가 조사선을 연구하러 백양사에 들렀었는데, 그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무차 법회의 전통을 이야기했더니, 왜 그 좋은 걸 하지 않느냐고 해서 무차법회를 계획했습니다. 무차 법회에서 수행자들의 공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내가 해야할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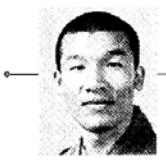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지금 대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가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파괴, 남북통일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 불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류는 멸망이냐 생존이냐 하는 문명사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문명의 병근을 치유해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위주의 사고를 초월한 참사람주의라고 확신합니다. 참사람 만이 현대 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진실 여여한 진리의 세계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어라
빨리 상응하고자 한다면
오직 둘이 아니라고 말하리
둘이 아니고 모두 한 가지이니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구나'
〈승찬 스님의 신심명(信心銘) 중에서〉

참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간과 대자연을 불이일체(不二一體)로 보며, 영원한 생명으로 봅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바로 알고, 끊임없이 참선 수행해야 합니다. 참선을 통해 이기적인 욕망을 가라앉히고, 참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만이 인류가 살 길입니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insoo@buddhapia.com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미산스님 <하>

지금은 승가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그렇지 않지만 과거 동국대학교는 스님들의 무덤(?)으로 통했다. 어렵게 대학공부를 마치고 나면 환속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4년의 대학생활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장 자유로우며 활기가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공부를 위해 진학한 스님들도, 대학의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또 아직까지도 군법사라는 제도는 조계종 스님들의 공식적인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까닭에 환속의 유혹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불가에는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쭉 뻗은 나무는 서까래나 기둥, 대들보 감으로 다 베어지지만 굽은 나무는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라 산을 지킨다는 뜻이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쓸모있어 보이는 사람은 출가수행생활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안팎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세상의 안목에서 볼 때 굽은 나무가 불가에선 오히려 더 귀하고 소중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미산스님처럼 우직하게 자신의 공부만 챙기는 스님은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혹 눈에 띄었다가도 홀연히 그 모습을 감추곤 한다. 마치 산을 지키는 거목처럼 쉬 자신을 팔지 않고 오롯하게 한길로 매진하는 까닭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90년대 초반 강원을 마치고 인도 및 동남아시아 성지순례를 나서서 스리랑카에서 우안거를 날 때 우연히 미산스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석사과정을 마치고 또 공부를 더 하기 위해 영국으로 가셨다는 소식이었다. 대학을 졸업한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스님은 은근한 끈기와 쉼없는 노력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저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공부를 챙겼다는 스님이기에 유학생들 사이에서 특별한 이야기 거리를 들을 수 없었다.

2년 전 불교계 신문에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미산스님의 기사를 접하게 됐다. 세계적 명문으로 이름난 대학에서 한국 스님의 향학열과 구도열정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 귀국한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거의 20년 세월을 넘어 스님을 뵙게된 것이다. 스님은 반가움에 어쩔줄 모르는 나에게 마치 어제 만났다 헤어졌던 사람처럼 그렇게 맞아 주셨다. 학창시절 법사의 인연으로 만났다가 출가의 세월이 익어 어느덧 종단의 소임을 보게된 후배를 스님은 스님의 늘 그런 담담함으로 격려하고 다독여 주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묻고 싶은 이야기와 청하고 싶은 부탁이 많았지만 바쁜 스님의 발길을 잡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다만 스님께 나중에 여건이 되면 우리 종단과 포교를 위해 조금의 힘이라도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스님은 흔쾌히 그러마는 대답으로 자리를 접었다. 그리고 미산스님은 다시 미국 하버드대학의 세계종교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잠시 더 외국생활을 했다.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뒤 스님은 남방의 수행처와 국내의 선방을 다니시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월드컵을 맞아 한국불교계에서 추진하던 템플스테이 일을 맡아 다시 서울로 온 나에게 있어 종단의 국제적 감각이나 제반 상황은 극히 열악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침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와 함께 외교관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 핵심 역할을 맡아줄 프로그램 진행 스님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수 차례 논의와 회의를 거쳐 미산스님이 최적임자라

쉼없는 공부…옥스포드大 박사
국제행사 큰 몫, 든든한 의지처

는 결론을 내고, 당시 수행처에 계시던 스님께 어려운 부탁을 드렸고 스님은 거절하지 않으셨다. 템플스테이가 시작될 당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계 대표행사인 연등축제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의 전체 일간지와 오신에까지 보도된 직지사에서의 외교관 템플스테이에 대한 기사비중은 오히려 연등축제를 압도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발우공양을 비롯해 참선, 다도, 연등 만들기 등 미산스님의 유창한 영어로 진행된 가르침과 지도는 대다수 참석자들의 깊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이후 템플스테이의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종단의 유일한 국제포교인력 양성과정인 국제포교사연수와 국내외 거주 국제포교사 한국문화체험 등 스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미산스님은 수고와 번거로움을 아끼지 않으신다. 하지만 미산스님은 일을 아무리 해도 표를 남기지 않는 스님이다. 마치 흐르는 땀방울을 식혀준 바람이 자취를 남기지 않듯 어느새 산사의 고요속에 몸을 감추고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30년을 넘긴 출가수행의 이력은 스님의 한결같은 젊고 편안한 얼굴속에 갈무리되어 있다. 산사의 살림을 즐겨 백양사 참사람 수행원의 소임을 맡고 계신 스님은 주변사람들에게 늘 든든한 의지처이다.

서산 부석사 주지

금강승 선관무(선무도) 수련 안내

주말 수련반 | 동계 수련반 | 연중 수련반 (행자)

금강승 선관무(선무도)는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불가의 전통 수행법이다. 이는 화랑도에게 세속오계를 가르친 신라의 원광법사가 중국법화사에서 천축(인도)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은 후 귀국하면서 이땅에 면면히 내려오는 전통 수행법이 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승 선관무회주인 원욱스님은 양익스님에게서 이 수련법을 전수 받은 후 스님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전하여 제자들을 양성하였으며 금번, 사단법인 금강승 선관무회 중앙수련원 개원을 계기로 각처에 인연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1. 동계 수련반 : 1차 2002. 12. 23 ~ 2003. 01. 06 (15일간)
(음 : 2002. 11. 20 ~ 2002. 12. 04)
2차 2003. 01. 07 ~ 2003. 01. 21 (15일간)
(음 : 2002. 12. 05 ~ 2003. 01. 19)
2. 주말 수련반 : 금요일 21시 입소 ~ 일요일 14시 퇴소(2박 3일)
※ 2002년 10월 25일 부터 연중무휴로 접수 가능
3. 장소 : 금강승 선관무회 중앙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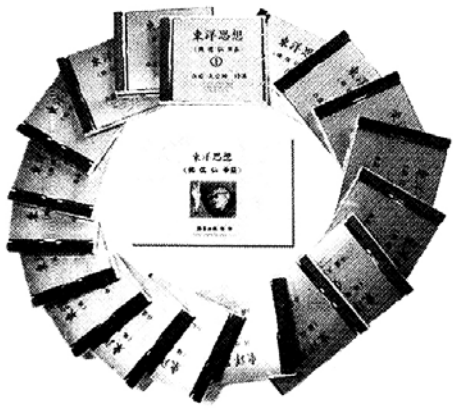
◎ 문 의 처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 904
☎ 033)764-6362.
서울본원 ☎ 02)598-6771,
경기본원 ☎ 031)754-4213
◎ 홈페이지 : http://www.sunkwanmoo.com

사단법인 금강승 선관무회 이사장 원욱합장

탄허대종사

동양사상특강CD안내

탄허 대종사의 깊고 넓고 높은 강의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탄허대종사께서 1977년~1982년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18장의 CD에 담아 보급 합니다.



◆ 가 격 : 18장 1세트 126,000원(교재 1권 포함)
◆ 제작·보급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4-4
건대빌딩 본관 202호 교림출판사
◆ Tel 02)733-3334 / H·P 018)733-3334
02)733-3359
http: www.tanheo.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제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큭,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지수 법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